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에 대한 리뷰 -보다 다양한 불교와 과학의 긴장 관계를 위하여-

우희종(서울대학교)

1. 불교와 과학을 말한다면

작년 말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이라는 책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출간되었다. 생명존중의 불교와 근대생명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다윈의 진화론 사이의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그동안 자연과학과 기독교의 만남이란 주제로 많은 신학자들과 과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과학과 불교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으나 공저자이자 책으로 묶는 일을 담담했던 입장에서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과학과 여러 면에서 충돌되어 온 기독교에 비해서 그동안 불교는 과학과 큰 문제없이, 오히려 불교는 과학적이라고까지 일컬어져 왔다. 이미 19세기부터 서로 문제없이 공존해온 불교와 근대과학은 특히

2003년도 미국 MIT에서 시작되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달라이 라마와 신경과학자들의 공개적 만남과 그들의 대화를 통해 더욱 그런 이미지가 퍼진 것에도 기인할 것이다. 특히 의식의 다양한 차원을 논리적으로 추구해가는 유식불교와 함께 마음을 강조하는 불교는 현대생물학의 대표적인 분야로써 의식의 문제를 다루는 서양의 신경과학이나 인지과학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터전이 이미 손쉽게 마련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뇌과학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불교가 이웃종교보다 훨씬 쉽게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양자가 서로 더욱 더 풍요롭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주제나 범위가 명상이나 인지 등의 특정 분야로 한정된 결과도 가져왔기에 이는 불교에 있어서도 근대과학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다. 최근에 발간된 대표적인 불교와 과학에 대한 논의로서 Donald Lopez의 *Buddhism & Scien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와 같은 해외 연구물에서도 주로 불교의 명상과 같은 의식문제 및 불교적 가치와 과학간의 유사성 등이 검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20세기 초 모든 현상에 관찰자의 역할이 관여되어 있으며 또한 물질이라는 것도 형태 없는 에너지 상태로 규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불교에서 존재의 실체 없음을 가리키는 공사상과의 만남과 겹치면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과학은 종교와 대립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서구 사회에서 불교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양자역학이나 인지과학과의 유사성은 당연히 서양인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이들의 논의가 주로 물리학과 인지과학에 집중되어 온 것은 이와 관련된 여러 서적이 말해 주고 있다. 2003년도 Columbia University 출판부에서 Alan Wallace의 편집으로 발간된 *Buddhism & Science*라는 동일한 제목의 책에서도 다루는 범

위가 인지과학과 물리학에 한정되어 있고, 그의 저서로서 *Contemplative Science : Where Buddhism and Neuroscience converg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에서도 유사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Buddhism and Deep Ecology* (Daniel H. Henning, Author House, 2002) 등과 같은 책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한편 물리학이나 인지과학, 뇌과학 외에도 불교가 강조하는 생명존중의 가치는 불교와 생태학 내지 생명윤리학과 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그런 면에서 최근의 대표적인 서적으로는 *Buddhism, Virtue And Environment* (David Edward Cooper and Simon P. James, Ashgate Publishing Co, 2005)과 초기불교 경전에서 현대 생태 문제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찾아낸 *Environmental Ethics in Buddhism : A Virtues Approach* (Pragati Sahni, Routledge, 2007) 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불교와 과학의 만남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자연과학의 다양한 분야는 별도로 한다 해도 생명존중의 불교가 서양 근대생물학과 의 치열한 논의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인상적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저명한 생물학자인 Lynn Margulis가 서문을 쓴 *Dismantling Discontent : Buddha's Way Through Darwin's World* (Elite Books, 2007)라는 책에서 자연 활동을 사랑하는 불교 명상가로서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과학사회학을 가르치는 사회학과 교수이자 자신이 장기간 사회심리학 학생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온 Charles Fisher 박사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하여 불교적 시각을 조명한 책은 흥미롭다.

따라서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이라는 책을 통하여 불교와 다윈의 만남을 시도한 것은 매우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생명이라는 공통 지점을 매개로 하여 2009년에 다윈 탄생 200주년이자 진

화론 등장 150주년에 불교와 진화론을 같이 다루어 보고자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다. 서양의 근대생물학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친 다윈의 진화론과 불교 간의 차이와 유사점을 명백히 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자는 취지였다. 이미 무한 경쟁 속에 모든 것을 생산성의 잣대로 평가하게 된 신자유주의의 시대 풍조 속에서 생존 경쟁을 통한 자연선택의 입장을 보여준 다윈의 진화론은 20세기 초 당시는 과학적 사실로써 우생학의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고, 사회다윈주의의 형태로 좋건 싫건 생물학이라는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쳐 왔다. 세상을 해석하는 서구의 대표적 시각으로서의 진화론과 동양의 대표적 종교로서의 불교의 만남은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모색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과 동시에 분명한 것은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도는 과학의 특정 분야만의 만남이 아니라 종교와 과학이라는 주제에 불교와 진화론을 바탕으로 불교적 연기론과 서양과학의 환원주의적 논리실증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동서 문화의 근본적 시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질적 분야 간의 만남이라는 시도는 시대적 요구이기는 하지만 불교라고 해도 다양한 종파는 물론, 최소한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간의 교리적 차이가 있고, 또 도그마를 지닌 종교와는 달리 진화론은 열린 구조를 지닌 과학으로서 생물학 내의 진화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해가는 과학을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는 정보의 축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과학의 외형적 모습에서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다.

특히 이렇게 불교와 진화론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념과 이념의 만남, 철학과 철학의 만남, 더 나아가 이질적

인 두 영역의 만남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만남을 통해 이질적인 영역의 장벽을 넘어 이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닌 보다 큰 창발효과(emergence)를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 책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한 마디로 말할 수는 어렵지만, 다양한 분과학문 체제에서 학제 간의 경계를 넘어선 융합학문이 차세대학문으로 거론되고 있고, 국내에 통섭(consilience)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간의 통섭(統攝)이 아닌 진정한 통섭(通攝)이나 융합학문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각 영역의 정체성(identity)을 구성하는 해당 영역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그들만의 고유 언어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소통하고 변화하며 새로운 창발을 유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통섭(通攝)이라는 메타(meta)적인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한 시도를 하는 이들의 학문적 경계를 넘나드는 유목민적 성향과 통합적 사유의 성숙도이다. 이를 통해 이질적 영역에서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사유의 틀을 창발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은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런 인적 요소 외에도 이질적인 두 영역의 만남이 종종 새로운 결과 도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각 영역의 역사성 및 정체성과 더불어 통섭(通攝)에 있어서의 구체적 접근 틀이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 이에 대한 고민도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에서 시도가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2. 저자들의 시도와 도전

학제간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인 이들로 구성된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의 저자들은 총 5명이다. 유식불교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안성두는 낯선 진화론과의 진지한 만남을 모색하고, 다윈 진화론의 대표적 적자이자 유전자 실체론에 근거한 사회생물학의 연구자인 최재전은 솔직하고 성실하게 불교와의 차이점을 보여주기에 이들의 글은 불교와 진화론의 만남의 출발 장소가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서양근대과학의 전통적인 분석적 환원론의 접근으로는 이미 한계에 부딪힌 관계 지향적 학문인 현대면역학을 바탕으로 선종의 입장에서 진화론과 대승불교적인 시각과의 만남을 시도한 우희종의 글은 앞의 두 저자가 다룬 부분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형태다. 이와 더불어 이런 시도의 밑바탕이 되게끔 진화론이 지닌 철학적 의미와 그의 다양한 전개를 다룬 이한구 및 서구 사회에서 있었던 과학과 기독교 간의 긴 애증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서 앞으로의 불교와 과학 간의 만남이 생산적이 될 수 있도록 시도한 홍성욱의 글이 이 책에서의 시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이해를 위해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언급해 보면,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그전과는 달리 생명체에 시간의 개념을 부여하였다. 한 개체에는 생과 사라는 시간적 한계를 넘어 수천만 내지 억년의 시간이 담겨 있음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그러한 장구한 시간은 생명체와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관계성의 재발견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안성두는 불교 유식학과와의 교학적 입장을 바탕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언급된 사회생물학의 진화론적 시각을 철저히 검토한다. 사회생물학이 말하는 진화의 근본 입장과 불교적 기본 교설의 양립 여부에 대한 학문적 검토를 통해 그는 사회생물학자들

에게 중요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업의 의해 조건지어지는 것으로서 해석함으로써 진화론과 불교 간의 양립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불교에서 언급되는 현상계에서의 이(理)와 사(事)라는 이원론적 입장, 그리고 종교가 지닌 해탈 구제와의 차이를 통해 진화론과의 상이점뿐만 아니라 과학과 종교가 지닌 태생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최재천은 에세이 형태로 쉽게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사회생물학에 이르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기본 입장과 사회생물학적 진화론과의 유사성을 찾고자 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사회생물학의 주요 연구주제인 이타성(altruism) 연구와 불교가 지닌 측은지심 및 이타성과의 연결 고리이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에서의 친족 이타주의와 호혜성 이타주의를 근거로 그러한 시도를 제시하면서도 불교의 무아론과 진화생물학의 논거를 이루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유물적 실재성에 대한 차이점 인정은 오히려 앞으로 양자 간의 보다 풍부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우희종은 논의의 출발점으로써 다윈진화론에서 다루는 생명 논의는 개체적 생명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체의 개체성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시작하고, 동시에 과학과 종교가 지닌 본질적 차이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다. 그는 불교와 다윈진화론의 보다 충실한 만남을 위해서 환원론에 근거한 사회생물학적 시각 외에도 근대과학의 환원론이 지닌 한계 극복을 위해 21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복잡계 과학(science of complexity)과 후성유전학(epigenetics), 그리고 기타 오믹스 생물학(omics biology)의 관계론적 입장을 강조한다. 그는 생명 탄생에 필요한 식(識)도 물질적 화합에 의한 내재된 잠재태의 창발적 발현으로 봄으로써 물질과 정신이라는 서양의 이분법적 시각이나 생기론의 극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진화의 개념을 ‘연기적

관계성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 작용'과 '오늘 이 자리에서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누적'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그는 몇 만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진화의 모습을 선종에서 강조하는 '지금 여기'라는 일상생활 속의 삶의 문제로 끌어들었다.

이한구는 진화론이 철학에 제시한 영향을 살핌으로써 그 근본 시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될 진화론과 불교와의 통합적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의 영역을 살피면서 진화론은 반본질주의(anti-essentialism), 비결정론(indeterminism), 무목적론(ateleology) 및 유물론(materialism)이며, 자연주의적 인식론의 한 유형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가 주목하는 것은 불교가 지닌 변증법적 사고로써, 이를 통해 윤리이론에서 두 영역의 중첩이 확대될 수 있으며, 진화론적 윤리의 최고 단계인 생명평등주의가 불살생과 자비라는 불교적 생명윤리와 만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성욱은 불교와 진화론의 본격적 만남에 앞서 종교와 과학 간의 갈등과 화합의 모습을 중층적이고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과학사적으로 살펴본 기독교와 과학의 애증 관계는 생물학적 통섭을 주장한 윌슨까지 검토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 특히 달라이 라마의 관점에 주목한다. 그는 진화론과 불교교리 간의 유사성을 밝히고자 시도했던 최재천과는 달리, 달라이 라마가 지적하듯, 양자 차이에 대한 성찰이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이러한 저자들의 시도가 불교와 진화론의 만남에 있어서 얼마나 충실한 통합적 시각을 제시하느냐는 평소 학제 간의 통섭에 대하여 저자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열정을 지니고 있었는가를 반영할 것이다. 또한 각 저자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불교와 진화론이라는 두 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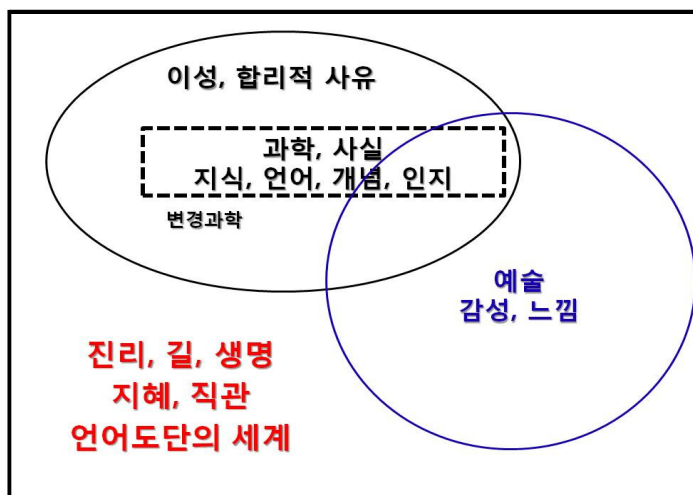
적인 영역에 대한 지식 외에도 상이한 두 분야에서의 암묵적 지식도 요구되는 험난한 작업이었기에 자신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자신의 고유 영역 밖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전개될 수 있는 지 그 과정을 탐색하고 독자에게 소개하는 형태로도 읽혀진다.

3. 두 영역의 이질적 만남을 위하여

과학과 종교가 만난다는 것은 아무리 불교와 과학이 가깝다 해도 그것은 기독교와의 상대적 입장일 뿐 과학과 불교가 지닌 근본적 차이는 존재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배타적인 과학의 권위를 고려할 때 서양 근대과학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은 분명 합리적 사고체계를 말하고 있지만,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모두 과학인 것은 아니다. 과학이란 우리의 합리적 사고가 특정 조건이나 형태를 취할 때 비로소 과학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아무리 합리적 사고라 해도 모두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과학이 없던 원시시대에 원시인들도 합리적 사고를 했기에 험한 자연 환경 속에 살아남아 인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고려하고, 또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간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과학적 이해가 전부가 아니며, 앞으로 과학에 의해 밝혀지고 얻게 될 많은 합리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은 자신이 지니지 않은 단어로 지칭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언어로 구조화된 생각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변경과학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생각의 아파트 평수를 넓혀가고는 있지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영역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렇기에 과학 내지 과학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사유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

시 표현한다면 현상계를 다루는 과학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다.



<그림 1.> 인간에 있어서의 과학과 종교의 평면적 위치

또한 인간이나 인간의 삶이 단순히 합리적 사고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예술이나 문학 등에서도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공감과 감동을 얻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인간의 삶이 단지 합리적 이성만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지지받지 못한다.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개인의 창작력과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유명화가의 그림으로부터 사람들이 감명받는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란 이성과 감성, 더 나아가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많은 다양한 영역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그림1)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유물적이고 동시에 기계론적 관점은 인간이 자신의 외부 환경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이성적 사유 체계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갖춘 방식에 불과하다. 과학은 인간의 합리적 시각을 반영하지만 모든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과학

은 아니기에 비과학적이지만 많은 합리적 사고가 존재하며, 당대의 과학이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합리적 사유와 사고, 더 나아가 감성으로 말해지는 영역 및 이러한 인간의 언어화된 생각이나 감각을 뛰어넘은 언어도단의 세계는 늘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 속에서 불교적 관점과 과학이라는 인간의 문화의 만남이 시도되어야 종교와 과학의 만남이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의 총설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이질적인 두 분야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모델로써 분과학문 간의 소통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으로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 사이에서 관찰되는 현저한 비대칭성(asymmetry)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자들이 철학이나 인문학으로 학문적 영역을 넓혀간 사례는 많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일정 공간인 실험실에 묶여 실험 연구에 의존하는 자연과학자보다는 인문사회학자에게 사고의 유목민적 특성이 더욱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문간 비대칭성에서 나타나는 자연과학자들이 보여주는 영역의 융통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학문 간의 이러한 비대칭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진정한 학제간 융합의 노력은 성과 없이 끝날 것이며, 굳이 통섭(通攝)을 이야기한다 해도 환원론에 근거하여 생물학적 통섭(統攝)을 이야기한 윌슨(E. Wilson)식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통섭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차 우리 사회에 지식의 위계질서(hierarchy)마저 언급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 간의 비대칭성의 존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4. 암묵지와 소통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의 총설에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만, 자연과학이건 인문과학 내지 사회과학이 단순한 직관이나 당위가 아닌 합리적 지식체계로서 학문 영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언어와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문과 학문, 아니면 과학과 종교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역 간의 만남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메타적 시도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작은 범위의 접근모델이다. 이러한 모델링에서 주목할 것은 각각의 영역을 규정하는 고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구조와 언어이다. 이러한 시도의 모델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각 영역에서의 암묵지(tacit knowledge)이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비대칭성의 기원을 보기 위해 두 영역의 암묵지와 더불어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맺기의 차이를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자연과학자들은 한정된 공간의 실험실에서 많은 실험기구나 관측기구에 둘러싸여 시간을 보내며, 과학연구와 실험에 있어서 실험자의 주관적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과학에서 요구되는 실험의 재현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종종 같은 교육배경에 동일한 내용을 동시에 배우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주관적 요소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진행되는 실험실에서의 연구결과가 실험수행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연과학의 수행에 있어서 실험기구나 관측기기 및 실험법 등과 같은 비인간요소(non-human agent)와 실험자 간의 관계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교과서나 실험 방법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실험실 내의 일종의 암묵지에 의한다. 자연과학의 실험자가 실험기구 등과 같은 비인간 요소와 맺는 암묵지야말로 과학 실험의 중요 기제이며, 동일한 전공자라도 각자가 지닌 비인간요소와

맺고 있는 관계 유형이나 친밀도 및 암묵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과학 수행에 있어서 다양한 능숙도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언어화되어 기술될 수 있는 명시지(explicit knowledge)와는 달리,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에 의해 개념화된 암묵지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특정 집단 내에서 비언어적 형태로 어느 정도 공유될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이나 문화 속에 체화되어 소위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도킨스가 말하는 문화유전자인 밈(meme)의 형태로 작동할 수도 있다.

한편, 자연과학에서 암묵지 형성에 관여하는 실험실에서의 비인간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과학사회학자로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있다. 그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 actor-network theory)에서 말하는 것은 과학에서의 비인간요소의 참여와 더불어 사람과 이들 간의 동맹관계다. 그는 과학지식에 대한 고전적 실재론이나 전형적 사회구성의 입장과는 달리 인간과 비인간요소의 상호작용과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현실정치는 사물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한다. 인간과 비인간의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된 셈이고, 사물의 언어가 인간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사물의 언어에 기반한 암묵지 형성에 있어서도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언급한 언어의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면과제로 남겨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학의 비대칭성 극복 여부는 인문사회학자들의 비인간요소에 대한 경험의 결핍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행위는 인간과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요소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식 창출의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문사회학자는 과학기구, 기술 등과 같은 비인간요소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들에게 자연과

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물과의 동맹 과정과 이로 인한 암묵지가
결여되어 자연과학적 언어의 시니피에(signifié)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이고 이 때문에 자연과학에 대한 이들의 접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마무리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에서 그동안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던 불
교와 다윈의 진화론의 만남이라는 첫 시도에 있어서 아쉬움도 남는다.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인 저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영역이 아닌
분야에 대하여 얼마나 심층적으로 알고 있느냐다. 『붓다와 다윈이 만
난다면』에서 다루어진 불교와 다윈의 논의가 20세기 말 분자생물학이
시작하던 시점에서의 유전자 개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생물학만으로
전개됨으로써 21세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학문의 유
전학적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검토된 내용도 ‘이기
적 유전자’라는 사회생물학의 일반 대중서만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과
학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불교적 입장 중에서 특정 입장만을 언급함으
로서 단지 논지를 펴가기 위한 편의적 인용에 불과한 경우도 보인다.
이는 불교에 대한 피상적 내지 부분적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있을 진화론과 불교의 만남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한편 융복합 시도라는 요구는 두 영역 간의 보다 바람직한 소통과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당장 모든 저자가 이런 요구 사항을 충
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생산성과 효율의 추구 속에 경쟁이 미
덕으로 된 신자유주의의 학문 풍토 속에서 무리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전공 분야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다른 분야의 영역을 탐구하며 이에
수반되는 암묵적 지식마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작업이라는

것은 일 년 단위의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대학의 학문 문화 속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적 사유가 요구되는 이번 작업에 참여한 저자들은 학문적 열정과 용기가 살아있는 이들이며, 불교와 진화론이라는 다양한 층위의 많은 의미를 지닌 두 분야의 만남과 논의된 결과물을 담은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의 글들은 비록 이러한 첫 시도에 있어서 부족할지는 모르나 두 영역의 만남이라는 본래 의도는 충분히 만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붓다와 다윈이 만난다면』을 통해 불교와 진화론, 그리고 불교와 과학이라는 주제에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